

살아보고 결정 하세요...영암군 귀농귀촌 다양한 지원

한 달 살기·만원 하우스·마더하우스 등 농촌 체험·체류 중심
미암면 서울시민 체험시설 ‘서울농장’ 400명 다녀가 인기

영암군이 도시민 귀농귀촌을 지원하기 위해 한 달 살기, 만원하우스, 마더하우스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영암군은 귀농귀촌을 꿈꾸는 도시민이 농촌행을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는 주거에 대한 부담인

점을 감안, 다양한 정책으로 살아보고 머물고 정착하는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영암살래? 영암살래!’는 도시민이 영암에서 한 달간 머무르며 농촌 생활을 체험하는 체류형 정착 유도 프로그램이다.



영암군이 서울시민 체험시설로 운영 중인 ‘영암 서울농장’을 찾은 가족들이 농촌 이해 프로그램에 참여 실습을 하고 있다. <영암군 제공>

행안부 ‘두 지역 살아보기’ 공모에 선정돼 군서면 5개 세대 주택에 입주해 마을주민과 소통하며 농촌의 일상을 경험한다.

‘전남형 만원세컨하우스’는 영암 정착을 희망하는 이들을 위한 주거지원 제도다. 농촌에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하거나 철거 후 모듈러 주택을 설치해 월 임대료 1만원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마더하우스’는 베이비부머 세대 귀향인에게 노후 주택을 리모델링해 정착 기반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군비 70%, 자부담 30% 수리비로 부모·본인 소유 단독주택을 고칠 수 있다.

미암면에 서울시민 체험시설로 운영 중인 ‘영암 서울농장’도 인기다.

서울농장은 계절별로 딸기, 무화과 등 수확, 지역 축제 참여 등 2박 3일 프로그램으로 도시민의 농촌 이해·관심을 넓히는 도농 교류 거점 역할을 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400여 명의 서울시민이 서울농장을 방문해 농촌 생활을 체험했다.

군은 귀농정착금 지급, 귀농인의집 운영, 귀농산어촌 어울림 마을 조성 등 귀농귀촌인 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김선미 영암군 인구청년과장은 “도시민이 영암에서 살아보며 귀농귀촌을 결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 사업과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도시민이 영암과 인연을 잇는 정책을 꾸준히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영암=전봉원 기자 jbh@kwangju.co.kr



완도군, 대한민국 환경대상 ‘탄소중립’ 대상

해조류 탄소 흡수원 확대 정책 인정

완도군이 ‘제20회 대한민국 환경대상’ 시상식에서 환경 행정 탄소중립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사진>

‘대한민국 환경대상’은 대한민국환경대상위원회와 환경미디어가 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해 공로가 큰 기업, 공공단체, 지자체, 단체, 개인을 선발해 시상하는 상이다.

완도군은 해조류 양식 기반의 탄소 흡수원 확대를 위한 정책, 해양 쓰레기 통합 관리 체계 구축, 바다 숲 조성 등 해양 환경 보전과 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또 해양 환경미화원 운영, 찾아가는 친환경

정화 운반선, 해조류 부산물 재활용 등 자원 순환형 해양 정화 인프라 구축, 바다 생태계 보전 활동, 미 항공우주청(NASA) 해조류 블루카본 인증 협의 분야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완도군은 해조류 기반 해양바이오산업 선도 지자체로, 오는 2026년 해조류를 주제로 한 ‘2026 Pre완도해조류박람회’, 2028년 ‘국제해조류박람회’ 개최를 준비 중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대한민국 청정 바다 수도이자, 수산 1번지인 완도군은 미래 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자산인 바다를 지키고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신안군의의회 “한미 통상협상 농축산물 수입 확대 전면 반대”

“농업 기반 훼손...양보 배제해야”

신안군의의회(의장 이상주)가 정부의 대미 통상협상에서 농축산물 수입 확대 및 비관세 장벽 완화 가능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전면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국민 건강과 농업 보호가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했다. <사진>

22일 발표된 성명서에서 의회는 언론 보도를 통해 거론되고 있는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저율관세할당(TRQ) 확대 ▲유전자변형작물(LMO) 수입 규제 완화 ▲사과 등 과일류 검역 완화 등의 요구가 농업계와 국민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회는 “이번 통상협상 과정에서 국민 건강과 식량 안보, 농업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해 달라”고 강조하며 “쇠고기 수입 기준 완화와 쌀 수입 확대는 국내 농가의 어려움을 가중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또 유전자변형작물과 과일류 수입 확대는 국민 먹거리 안전과 지역 농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하며,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 안전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충분히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안군의의회는 농업과 농촌이 단순한 산업을 넘어 국가 식량주권과 지역경제, 환경 보호의 중요한 기반임을 역설하며, 정부가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국민과 농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균형 있는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농축산물에 대한 비관세 장벽 완화 요구를 전면 거부할 것 ▲국민 건강과 식량 안보를 훼손하는 어떠한 통상 양보도 단호히 배제할 것 ▲농

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민의 생존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협상 전략을 수립할 것 등 세 가지 요구 사항을 정부에 강력히 전달했다.

이상주 신안군의의회 의장은 “신안군의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농업과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화와 협력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며, 농업계와 국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해남군, 전남 첫 ‘어린이 스마트 안심쉼터’ 운영

해남동초 정문 인근에 설치

해남군은 전남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어린이 스마트 안심쉼터’를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어린이 스마트 안심쉼터는 미세먼지, 폭염, 폭우, 한파 등 열악한 외부환경으로부터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통학시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자 설치했다. 해남읍 동초등학교 정문 인근에 설치됐으며,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을 통해 총 1억 3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쉼터 내부에는 스마트 냉난방기와 공기정정기가 설치돼 사계절 이용이 가능하며, 무료 공공와이파이와 스마트콘 충전기 등 편의시설도 구비했다.

또 긴급상황 발생 시 해남군 통합관제센터와 즉시 연결되는 비상벨과 실시간 CCTV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돼 위기 대응이 가능하다.



해남군 어린이 스마트 안심쉼터.

운영시간은 여름철 기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계절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어린이 안전은 최우선 과제”라며 “아이들이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반값 관광택시로 완도 여행 하세요

완도 방문의 해 맞아 할인 이벤트

완도군이 ‘2025 완도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 택시 반값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완도 관광 택시를 이용하면 주요 관광지과 숨은 명소 등을 편하게 방문할 수 있다.

완도를, 군외면, 신지면, 고금면, 약산면에서 이용 가능하며 최대 탑승 인원은 4명이다.

요금은 2시간 5만 원, 3시간 7만 원, 5시간 10만

원, 8시간 14만 원인데 관광객은 해당 요금의 50%만 내면 된다.

이용을 희망하는 관광객은 이용일 2일 전까지 완도 관광 택시에 사전 예약해야 한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관광 택시 반값 이벤트뿐만 아니라 완도 방문의 해를 맞아 완도 치유 페이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 완도를 많이 찾아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목포시, 전략회의 개설...“정책 투명성 강화”

외부 전문가 등 자문도 병행

목포시가 시정에 대한 속의를 강화하는 전략회의를 신규 개설 운영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전략회의는 지난 1일 부임한 목포시장 권한대행 조석훈 부시장이 시장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긴급 현안이나 중요 사업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 과정을 거쳐 결정하기 위해 새롭게 개설한 회의다.

현재 시장권한대행 체제인 목포시의 주요 정책 결정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시장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찾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으로도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논의 대상은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연관돼 갈등 관리·해결이 필요한 사항 ▲시민의 안전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 ▲시민 숙원사업, 미래 성장 프로젝트 등 시장 역점사업 ▲시민의 권리확대, 의무부과 등 파급효과가 크거나 재정부담이 큰 조례 제·개정 등이다.

회의 참석대상은 국·소·단장 및 안전 담당부서 장으로, 안전에 따라 필요시 외부 전문가, 직능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의 자문도 병행한다.

조석훈 목포시장 권한대행은 “전략회의는 중요 정책에 대해서 담당부서 의견뿐만 아니라 시정에 대한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가진 국소단장을 비롯한 전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이라면서 “시정은 시 공직자가 다 함께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같이 이끌어갈 때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만큼 중요 정책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론화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완도해경 4월부터 31개교 1486명 대상 연안안전교실 성료



완도해양경찰서는 ‘찾아가는 연안 안전교실’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사진>

찾아가는 연안안전 교실은 해양경찰관이 직접 교육기관을 방문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한 물놀이 예방과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연안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과 올바른 구명조끼 착용법, 심폐소생술(CPR) 방법,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의 체험교육을 받았다.

완도해경은 지난 4월부터 지난 18일까지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31개교 1486명을 대상으로 연안안전 교실을 운영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체감도 높은 해양안전 교육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무안군 MU9, 취약계층 여름나기 선풍기 기탁

경로당·장애인복지시설에 100대

무안군은 지난 22일 지역 돼지피 모임인 ‘MU9’가 지역 경로당과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선풍기 100대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식은 김산 군수, 이호성 군 의회 의장, 김영진 MU9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사진>

MU9 회원들의 따뜻한 정성을 모아 마련한 선풍기는 에어컨 고장 등으로 냉방기기 교체가 필요한 경로당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전달되어 훈훈한 온정을 나눌 예정이다.

김영진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들이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나눔과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MU9는 지역 내 꾸준한 봉사과 기부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나눔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주신 MU9 회원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나눔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군에서도 취약계층 복지 증진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